

[2016. 05. 19 노르웨이 수산물 위원회 미디어라운드테이블 관련 기사]

신문사: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날짜: 2016. 5. 20
제목: "노르웨이 연어, 한국 건강 열풍과 찰떡궁합"		

아주경제

2016년 05월 20일
14면 (경제)



마켓 브레인 군바르 비에 노르웨이 수산물위원회 이사

“노르웨이 연어, 한국 건강 열풍과 찰떡궁합”

웰빙 욕구에 연어 인기 폭발적
▲ 수출량 7% 늘때 한국은 42%
덮밥·비빔밥·초밥·스테이크 등
한국식 색다른 레시피에 '깜짝'
가을 고등어 급속 냉동 후 수출
한국서 최상품으로 먹을 수 있어

지난해 노르웨이 연어가 사상 최고의 수출 액을 기록했다. 20~30대 젊은 여성 소비자를 중심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는 '연어 열풍' 덕분에 한국 수출액과 수출량 역시 전년대비 각각 58%, 42% 증가했다. 아시아 전체 수출액과 수출량이 15%, 7%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폭발적인 수치다.

한국에서 연어가 이처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노르웨이 수산물 위원회의 신임 한국·일본 담당자인 군바르 비에 이사(사진)는 지난 18일 아주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연어를 접하는 한국인의 방식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는 "다른 나라의 경우, 연어는 회 형태로 신선하게 먹는 게 대부분이고 기껏해야 샐러드 정도"라며 "한국은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레시피를 적용해 다양한 요리를 먹는다"고 놀라워했다. 스테이크를 비롯해 덮밥, 비빔밥, 타다키 등 다양한 연어 요리법이 등장했고, 회나 초밥을 직접 만들어 먹는 가정도 늘어났다. 뷔페 형태의 연어 무한리필 음식점이 인기를 누린 것도 성장 요인 중 하나로 꼽았다.

비에 이사는 "최근 한국에서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면서 육류 대비 수산물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며 "그 중에서도 연어는 오랜 세월 동안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는 인식이 있어 빠르게 한국 시장에 안착할 수 있었

다"고 설명했다.

노르웨이는 세계 최대 연어 수출국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 외에도 고등어와 송어, 키크랩 등 다양한 수산물이 한국에 들어오고 있다. 노르웨이 수산물위원회가 건강한 수산물, 안전한 식품, 지속적인 생산을 주요 정책으로 하는 만큼 한국인의 최대 화두인 '웰빙'과 맞아떨어졌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특히, 노르웨이 고등어는 노르웨이 북쪽 연안의 차고 깨끗한 바다에서 잡혀 몸에 좋은 지방 함유량이 최대 30%에 달한다. 좋은 품질 덕분에 노르웨이 고등어는 지난해 국내 고등어 점유율의 23%를 차지했으며, 수입 고등어 중에서는 80%를 웃돌았다.

군바르 비에 이사는 "노르웨이 고등어는 육즙이 풍부하고 부드러운 맛을 자랑한다"며 "1년 중 가장 맛있는 9~11월 잡힌 고등어를 곧바로 급속 냉동해 한국으로 수출하기 때문에 최상품을 먹을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는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노르웨이보다 많은 정도로 한국은 노르웨이에서 중요한 시장"이라며 "한국 소비자들은 트렌드에 민감하고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과거 PR 중심의 마케팅을 진행했다면, 지금은 수산물을 직접 접하고 체험할 수 있는 접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안선영 기자 asy728@



노르웨이 수산물 위원회 아시나요

NSC, 수요증진 목표로 활동 “가치 알리는 가교역할 할 것”

노르웨이 수산물 위원회(NSC)는 노르웨이 수산물을 대표하는 기관이다. 수산물 업계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조직이다. 본부는 노르웨이 트롬쇠에 있고 미국, 스웨덴, 프랑스, 일본 등 12개 해외 지사를 두고 있다.

노르웨이는 세계 140여개국에 수산물을 수출하는 ‘수산물 대국’이다. 노르웨이 연안 해역에서 어획한 수산물을 제공한다. 고등어를 비롯 연어, 송어, 대구, 청어, 바닷가재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특히 고등어, 연어, 송어는 첨단 관리시스템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

NSC는 노르웨이산 수산물의 수요 증진을 목표로 한다. 수출업자 지원사업과 수출 국가의 현지 파트너와 공동 마케팅을 하기도 한다. 매년 25개국에서 약 500가지 마케팅 프로젝트를 시행 중이다.

노르웨이 고등어는 지난해 국내시장에서 23%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했다. 이 같은 이유로 공급과 소비 요인이 작용했다고 NSC는 설명했다.

국내에서 상품성이 높은 고등어는 300g 이상 씨알 굵은 고등어인데 최근 어획이 어려워졌다. 또 다른 이유로 중국산 고등어 가격 상승이다. 지난 2011년까지 중국산 고등어가 절반을 차지했다. 하지만 중국 내 고등어 소비가 늘면서 중국산 고등어와 노르웨이산 고등어의 가격 차이가 줄어들었다. 이에 2012년부터 국내 수입산 고등어 국가별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연어의 인기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연어의 97%가 노르웨이산이다. 노르웨이 생연어는 얼리지 않고 항공직송으로 냉장 유통된다. 가정에서도 쉽게 즐길 수 있어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대한국 수출액과 수출량이 각각 58%, 42% 증가했다. 지난 1988년 이후 사상최고 연평균 기록이다. 아시아에서 한국과 일본이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군바르 비에(Gunvar L. Wie) NSC 이사는 “지난 3월 한국·일본 담당자로 취임했다며”며 “노르웨이 수산물의 포지션 강화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에 노르웨이 수산물 산업의 발전과 그 가치를 알리는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인웅 기자 parkiu7854@

제목: “소비자가 노르웨이 수산물 맛보는 것이 중요하다”

군바르 비에 노르웨이수산물위원회 한국·일본 담당 이사
“소비자가 노르웨이 수산물을 맛보는 것이 중요하다”



군바르 비에 노르웨이수산물위원회 한국·일본 담당 이사.

“노르웨이의 생산 양식장은 법에 규정되어 있는 넓은 환경에서 양식합니다. 한 양식장은 97.5%의 물과 2.5%의 생산으로 구성됩니다. 생산이 충분한 공간을 누리게 하는 일은 건강과 웰빙을 위해 중요합니다.”

군바르 비에 노르웨이수산물위원회 한국·일본 담당 이사는 신선하고 안전하게 양식되는 노르웨이 수산물을 강조했다. 2015년 노르웨이 수산물의 한국 수출량은 4만3660톤이다. 주로 수출되는 수산물은 연어와 고등어이며 송어, 킹크랩의 수출량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군바르 비에 이사는 “현재 한국으로 수출되고 있는 고등어, 연어, 송어, 킹크랩이 더 많은 시장 파이를 차

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한국은 유통 채널이 매우 다양해서 마케팅 전략도 세부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이에 핵심이 되는 리테일을 기본으로 두고 네이버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온라인을 활용한 서브 채널 마케팅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군바르 이사는 “최종 소비자가 고등어·연어와 같은 노르웨이 수산물을 일단 맛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연어의 경우는 생 연어 소비가 많다는 점에 집중해 주로 대형마트 중심의 마켓 시장을 중심으로 시식행사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고등어나 연어의 성장 동안을 파악하고 올해 한국으로 본격 수출하기 시작한 송어는 시장에서의 입지 마련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선희 sunny@withbuyer.com

No.	신문사	제목	날짜	기자명
1	조선일보	<u>노르웨이 연어 국내 수입량 급증, 인기 비결은?</u>	2016. 5. 20	이현정 기자
2	한국경제	<u>고등어에서 연어까지..한국 식탁 차지한 노르웨이산 수산물</u>	2016. 5. 19	강영연 기자
3	연합뉴스	<u>포즈 취하는 군바르 비에</u>	2016. 5. 19	N/A
4	연합뉴스	<u>포즈 취하는 군바르 비에</u>	2016. 5. 19	N/A
5	연합뉴스	<u>포즈 취하는 군바르 비에</u>	2016. 5. 19	N/A
6	연합뉴스	<u>포즈 취하는 군바르 비에</u>	2016. 5. 19	N/A
7	연합뉴스	<u>한국인 입맛 사로잡은 노르웨이 생선..비결은?</u>	2016. 5. 19	정빛나 기자
8	아주경제	<u>[마켓브레인] 노르웨이수산물위원회가 말하는 '노르웨이 수산물의 가치'</u>	2016. 5. 20	안선영 기자
9	서울신문	<u>"연어튀폐 많아졌다 했더니" 지난해 노르웨이 연어 수입 42% 꺾춤</u>	2016. 5. 20	홍희경 기자
10	메트로	<u>노르웨이 수산물 위원회를 아시나요?</u>	2016. 5. 19	박인웅 기자
11	더 바이어	<u>군바르 비에 노르웨이수산물위원회 한국 · 일본 담당 이사</u>	2016. 6. 02	김선희 기자